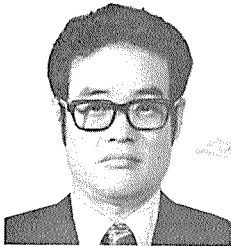


情報化社會와 通信 需要



柳 京 熙

韓國데이터通信(株) 研究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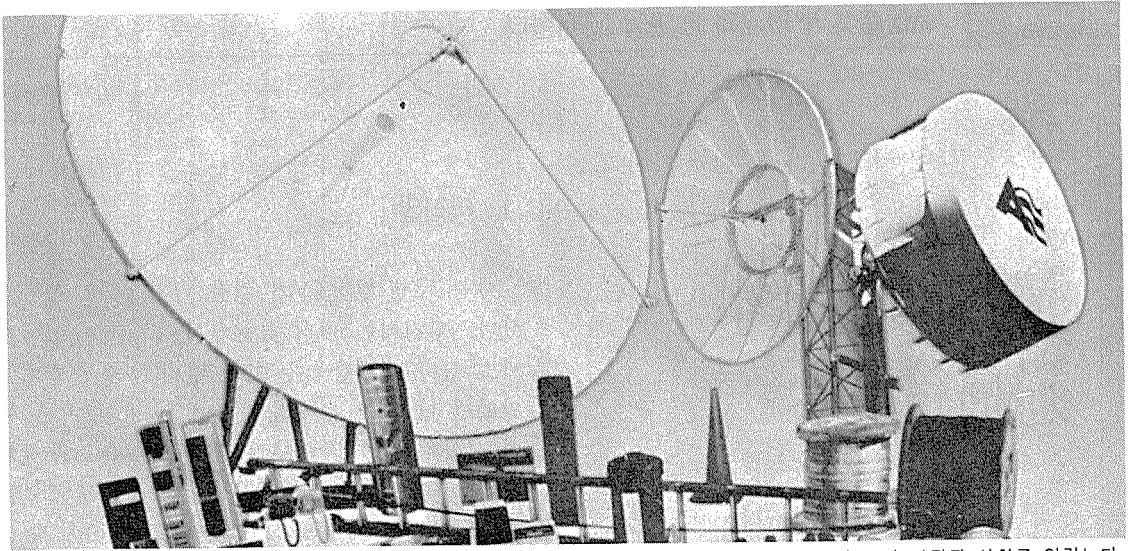
정보화사회의
진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각종 새로운
정보매체나 시스템의 발전으로서
정보제공의 편리성을 이루어야 한다.
컴퓨터를 근간으로 데이터 뱅크, 전자사서함,
전자 신문 및 전자 출판, 비디오 텍스트 등
뉴미디어로의 활용은 더욱 더
가속화될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생활관습도
변화할 것이다.

1. 머리말

나는 국산 컬러TV가 처음 나왔을 때 월부로 샀다. 당시에는 더러 외국산이 보급되어 있어서 제법 산다는 사람들은 이미 컬러TV를 즐기고 있었던 터이다. 우리집에 컬러TV가 설치된 이래 생활의 양상은 대단히 달라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집에서는 이상하게도 채널11이 잘 나오면 채널9가 잘 안나오고 이게 잘 나오면 11이 안나온다. 안테나를 서너번 바꾸어 보았지만 아직도 잘나오다가 안나오다가 한다. 어떤 때에는 시간에 따라 다른 듯 하더니 어떤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일 때도 있다. 매번 볼 때마다 이것도 저것도 만지작거리며 잘나올 때에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앉는 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귀찮아서도 나오면 보고 안 나오면 꺼버리곤 한다.

그런데 2년쯤 되었을까? 음성다중방송이 실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으려고 TV를 새로 사거나 부가장치를 추가하는 소동이 일어났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이들이 「우리집의 TV는 이제 늙었으니까 새로 하나 사야한다.」는 강력한 건의가 들어왔다. 나는 원래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부간 결정을 당장에 내릴 수가 없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돈이 없어서……」라고 변명을 했다.

정작 「영어공부도 하고 스테리오도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라고 정식 항의가 들어온다. 나도 아는 체를 해야 한다. 「음성다중한다고 TV를 바꾸고 문자다중한다고 또 TV를 바꾸고 앞으로 비디오텍스한다고 또 바꾸고 유선방송한다고 또 바꾸고 하다가 우리집에 TV가 몇대나 되겠어? 한대가치고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사든지 말든지 생각해야 될게 아니야?」라고 스스로의 우유부단을 변명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새걸



정보화사회란 결국 정보이용의 편리성이 극히 발전된 사회를 일컫는다.

사자는 요구는 없었으며 우리집의 TV는 아직도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한다.

전화만 해도 그렇다. 우리집의 개만 전화를 걸 줄 모르지 사람들은 모두 전화를 걸고 받곤 한다. 그런데 이정도면 괜찮은데 어찌나 길게 때로는 멀리 전화를 하는지 통신료의 부담도 부담이려니와 내가 쓸 틈을 주질 않는다. 「전화통을 마루에 놓아요.」라는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브랏치해서 써요.」라든가 이제는 「전화한대 더 놓아요」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전에는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집에서 전화로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 컴퓨터를 오래동안 썼는데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써?」라는 항의가 빗발치듯 했었다.

2. 정보화사회

나는 정보화사회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것이지 정보화사회를 만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한 정보매체든 뉴미디어든지 만들어지면 이용하는 사람은 그저 이용만 하면 된다. 과학기술자들은 열심히 새로운매체를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일반 국민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컴퓨터란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화줄을 매달아서 데이터 뱅크도 만들고 전자사서함도 쓰

고 전자신문도 만들고 전자출판을 만들어 두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생활에 알맞게 적용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TV를 매달아서 비디오 텍스트도 만들고 또 방송국과 연결을 해서 문자다중방송도 만들고 하면 사람들은 이용만하면 된다.

이것으로 정부의 행정을 편하게 하고 기업은 이것으로 경영전략을 세우고 은행은 돈거래를 하기도 하며, 재택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만들어서 집에서 학습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단말기로서 책없는 도서관인 데이터 뱅크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거의 모두 얻을 수 있으며,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른바 「이동 사무실」 역할도 할 수가 있다. 가정에 단말기를 두어서 이것으로 위와 같은 일은 물론 「재택근무」 「홈쇼핑」 「홈뱅킹」 등과 같은 지극히 편리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웬만한 민원서류는 집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래식의 생활습관, 작업습관, 학습습관들이 모두 변화하여 아예 사회제도마저 많이 달라질 것같다. 나아가서는 현재의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는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성이 상실되지 않을까, 도덕성의 결여가 일어나지 않을까

등에 관하여 지레 겁을 내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그러한 사회가 조성되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사회가 더 인간미가 넘치며 이웃끼리 더욱 정보교환이 많은 화기애애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응당 컴퓨터 범죄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 컴퓨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어서 「어항 속의 금붕어」 생활이 되어버릴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련되는 문제는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이며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가 아니다라는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다. 하기야 숙녀에게 나이를 묻는 것도 이에 저촉되는 것이며 어느 양반의 집전화번호가 알려지는 것도 그렇다는 식으로 「정보유통」을 막아버린다면 어느 세월에 전산화를 할 것인가?

자기의 나이나 집전화번호 정도는 아무나 알아도 좋다는 식으로 있는 그대로 마치 자기 이름이나 얼굴이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처럼 뚜렷하고 뻔뻔이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정보화의 추진이 빠를 것이다. 내 얼굴을 보려면 돈을 내시오라는 말이 상식적이 아니듯이 프라이버시의 지나친 해석은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전체의 추진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보란 편리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이 미 기존의 각종매체를 통하여 충분히 정보를 받고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때문에 선택이 용에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매체가 필요없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도 같은 정보를, TV를 통해서도 같은 정보를 각각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자신문을 왜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정답은 다만 기존의 매체보다 편리하다는데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정보가 이용하기 편하면 가림없이 이용해 버린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용하기가 편리한가에 따라서 그쪽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간혹 정보의 입수가 빠르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러나 사실은 편리하다면 약간 비싸더라도 이용한다는 원칙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 어느 실화를 예로 들면, 일본 어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이야기, 온라인으로 원문을 주문하는 시스템이 흔히 쓰여지게 되니까 이걸 써버리면 1주일 이내에 원문이 우편으로 보내어져 온다. 그러니까 불과 몇미터 떨어진 곳에 바로 주문하려는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해버린다. 몇미터 떨어진 책을 찾으러 가서 그걸 복사실에 맡기는 수속이 귀찮아서 아예 이렇게 해치워버린다. 과연 이 사서가 잘못된 것일까? 당연히 자기의 할 일은 한 셈이다. 그 나라야 외화가 귀하지도 않고 서비스가 잘 되지만 하면 그만이니까 말이다. 결국은 편의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도 기존의 매체보다 얼마나 쓰기가 편리한가에 따라서 보급이 잘되고 못되고가 결판날 것으로 본다.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마련하여 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나 스스로도 배달되어 온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읽을 수도 없어서 나름대로 정리하려고는 하지만 항상 엉망진창의 관리상태에 있다.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어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처럼 이른바 「정보검색」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느 사무실에서도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바로고질적인 골치꺼리일 것이다. 정보의 양이 많기만 하면 바로 온라인 전산화를 해서 찾기 쉽게 꾸며 두면 되겠지만 개인정보의 관리에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착수하기가 어렵다.

새로이 자꾸자꾸 만들어지는 매체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리하기만 하면 이용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의 사업은 전망이 있다고들 한다. 정보의 유통이 재래식인 경우의 사회에서의 불편을 한번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편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생활정보는 편리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 살림을 위하여는 세계의 꾸준한 국제정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 기술자들은 자기와 같은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꾸준히 파악하여야 한다. 모든 분야의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보고해서 꾸준히 추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가정의 재무부장관인 주부들은 매일매일 살아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 이쪽 시장의 콩나물은 저쪽 슈퍼마켓보다 싸지만 쇠고기는 다른쪽 가게가 더 싸다든가하는 그러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자질구레한 정보는 가정부들이나 하는 것이지 귀부인이 어떻게 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서 “복던산업”으로 변신하여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꼴도 보고 있기는 해도 이런 것들은 정보가 아니다.

일전에 필자는 역삼동에 있는 「만리장성」인가 하는 어느 식당에서 약속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역삼동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미처 알지를 못하고 다만 역삼동이라는 말과 「만리장성」이라는 말만으로 정보를 검색해 보기로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 넓은 거리를 서너바퀴를 도니까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늦었다. 전화로 114를 돌려서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길가에 일하는 사람이건 서성거리는 사람이건 탁치는대로 물어봤다.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에, 같은 서울 하늘아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다니……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 약속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약속이 있어서 나갔단다. 약속장소를 물어봤다. 모른다. 이제는 캄캄하다. 전화번호부를 찾았다. 도대체 못찾는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어느 약방에 가서 박카스 한 병 사마시면서 물었다. 그랬더니 「아마도 거기일 텐데……」하면서 있는 곳을 알려 준다. 헛걸음 삼아서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거기였

다. 실수는 실수대로 손해는 손해대로……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겪었을게 틀림이 없다.

특히 다방이나 식당이름과 그리고 주소만으로는 서울지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래도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한번쯤은 가본 곳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서울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몇년동안 살아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게 서울지리이다. 가령 “건물이름이나 다방이름만대어도 어떻게 갈 것인지, 주차장 사정은 어떤지, 교통편은 어떤지, 전화번호 등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검색되는 컴퓨터”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것은 별게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마음편하게 느낄까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5. 맺으면서……

필자는 평소에도 각종의 새로운 정보매체나 시스템의 발전으로서 정보화사회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속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담아두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할 작정이지만, 사실은 정보란 생활의 편의 및 편리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별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편리하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뚜렷한 정보의 수요를 알아야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정보의 수요를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조그마한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시스템 설계자의 말에 영똥하게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속단해 설계자들을 섭섭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